



미 증시, 섣다운 불확실성 해소로 강하게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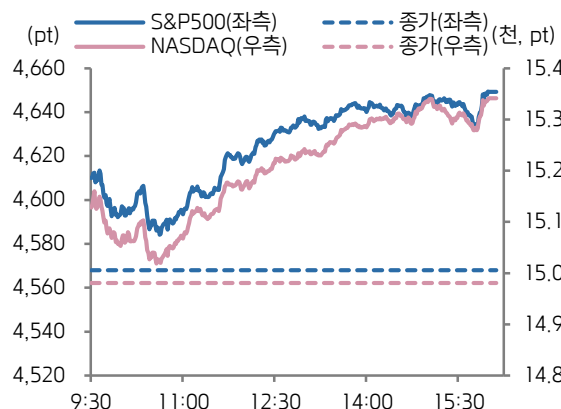
미국 증시 리뷰

21 일 (화) 미국 증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 우려감으로 낙폭이 컸던 성장주,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 반등. S&P500 지수는 0.9% 상승 출발 이후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감. 이날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오미크론 관련 연설은 섣다운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증시에 안도감을 제공. 전일 장 마감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(+6.2%)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(+10.5%)의 실적 호조는 이날 경기소비재, 반도체 섹터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(다우 +1.6%, S&P500 +1.78%, 나스닥 +2.4%, 러셀 2000 +2.95%).

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연설을 통해 '비상사태'를 선언하고 도시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, 섣다운은 "절대 없을 것이다(Absolutely not)"라고 언급. 바이든은 백신 등 자원들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경제 폐쇄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. 추가적인 방역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는 유럽과는 다르게 미국은 위드-코로나 정책 기조를 유지하자 주식시장은 안도감을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. 다만,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는 미국 코로나 사례 중 오미크론 비중이 73%가 된다고 발표하고 이날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환자 사망 사례를 보도되며 미국의 오미크론 확산은 빠르게 진행 중. 추가적으로 최근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1.75 조 달러 '더 나은 재건' 인프라 부양책 예산안에 반대 표명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맨친 의원과 어떻게든 합의해 보겠다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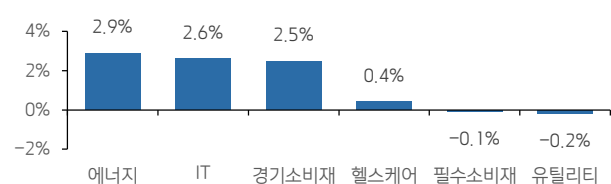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에너지(+2.9%), IT(+2.6%), 경기소비재(+2.5%)를 중심으로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, 유틸리티(-0.2%), 필수소비재(-0.1%)는 하락. 최근 방역 강화 우려감으로 낙폭이 컸던 여행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반등(다우 항공 섹터 지수 +5.3%)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(+3.4%)는 마이크로 실적 호조 여파로 급등, 금융주는 미 장기물 금리가 반등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임. 한편 애플(+1.7%), 테슬라(+3.9%) 등 대형 기술주들은 개선된 투자심리에 힘입어 상승.

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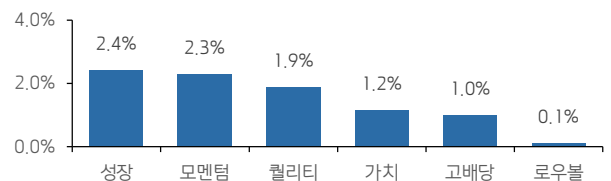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을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649.23	+1.78%	USD/KRW	1,192.64	+0.14%
NASDAQ	15,341.09	+2.4%	달러 지수	96.49	-0.06%
다우	35,492.70	+1.6%	EUR/USD	1.13	+0.02%
VIX	20.99	-8.22%	USD/CNH	6.38	-0.09%
러셀 2000	2,202.95	+2.95%	USD/JPY	114.10	+0.43%
필라. 반도체	3,857.30	+3.35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5,963.15	+2.42%	국고채 3년	1.722	-0.8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2.107	+0.5bp
Eurostoxx50	4,174.99	+1.65%	미국 국채 2년	0.669	+3.7bp
MSCI 전세계 지수	724.73	-1.35%	미국 국채 10년	1.469	+4.6bp
MSCI DM 지수	3,100.50	-1.25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190.08	-2.16%	WTI	71.48	+4.18%
MSCI 한국 ETF	77.87	+1.1%	금	1789	-0.3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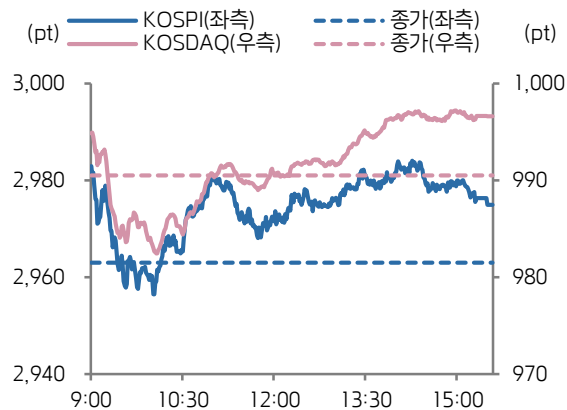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1.1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1.69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71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92.0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보험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미국 증시 강한 반등,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 축소 산타렐리 기대감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전일 강세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.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로 미국의 섀도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된 점은 한국 포함 아시아 증시의 반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. 추가적으로 미국 장기물 금리 상승에 불구하고 엔디비아, 테슬라,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인 점은 연말까지 산타렐리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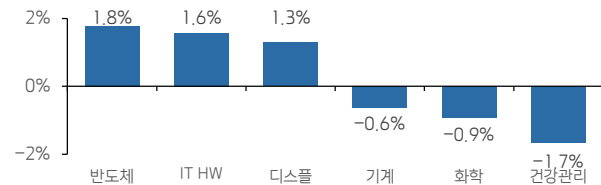
다만 전일에 볼 수 있듯이 백신 관련주 등 코로나 수혜주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. 추가적으로 24 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연휴 시작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면서 재료에 따라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지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.

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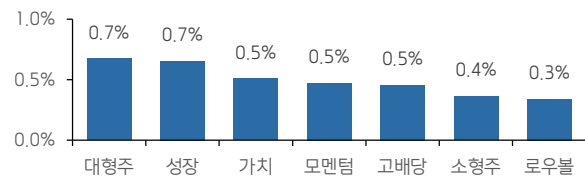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